

한자 사전의 표제자 배열 원칙과 색인에 관한 고찰*

김 은 희**

국문초록

본 논문은 중국과 한국의 5종 한자 대사전을 대상으로 표제자 배열 원칙과 색인에 관해 비교 분석하고, 사용자 지향성의 관점에서 한자 검색에 효율적인 색인의 구성 체계를 모색하였다. 본문의 분석 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표제자 배열은 5종 한자 대사전에서 대부분 부수-획수 체계를 기본원칙으로 채택하였고, 그다음 기준으로 필순-필형 원칙을 적용하였다. 둘째, 5종 한자 대사전의 색인 구성은 다중 색인과 계층 구조라는 공통된 특징을 갖는다. 색인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2단계의 계층 구조이며, 총획색인은 '획수 → [필순-필형]'의 계층 구조를 적용하고 있다. 셋째, 분석 대상의 중국 한자 대사전의 색인에서 [부수]를 검색요소로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 사전이용자가 겪게 될 부수 식별의 난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사전의 색인은 사전편찬자가 제공하는 정보 검색의 경로이다. 효율적인 검색을 위해 색인에서 '색인 별 찾아보기'를 구성하고, '검색요소가 명시적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특히 상부 표제어에 검색요소가 명시되어야 하며 2단계의 검색요소별로 수록된 글자목록이 많은 경우에는 상부 표제어에 2단계의 검색요소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한자 사전, 표제자 배열, 색인, 부수, 획수, 부수-획수 체계, 필순-필형 원칙

목 차

- | | |
|----------------------|---------------------------------|
| I. 서 론 | III. 한자 사전의 표제자 배열 원칙과 색인 구성 분석 |
| II. 한자의 배열법(字序法)과 규범 | IV. 결 론 |

* 본 논문은 2023년 1월 18일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院에서 개최한 제13회 東洋學研究院 사전학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 성신여자대학교 중국어문·문화학과 부교수 / heealang@hanmai.net

I. 서론

본 논문은 한자 대사전의 표제자 배열 원칙과 색인을 비교 분석하여 한자 검색에 효율적인 색인의 구성 체계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자 사전에서 색인은 단자(單字)의 형(形), 음(音), 의(義)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에 따라 표제자를 배열해 놓은 목록이다. 표제자의 배열과 검색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표제자 배열의 원칙이 곧 검색의 조건이 되므로, 중국에서는 배열법(編排法)과 검색법(檢索法)을 하나의 단어로 합성하여 ‘排檢法’이라고 한다.

중국의 한자는 상용한자만 해도 3,500자이고, 『通用規範漢字表』(2013)에 수록된 통용한자는 8,105자이며, 대표적인 한자 대사전인 『漢語大字典』(2010)에는 『康熙字典』(1716)을 비롯하여 역대 사서와 고금 저각 물에서 추출한 60,370자가 표제자로 수록되어 있다. 이렇게 방대한 수량의 한자가 수록된 한자 대사전에서 표제자의 배열과 글자 검색에 필요한 색인의 구성 체계는 매우 중요하다.

한자 사전의 색인과 검색에 관한 국내외의 연구는 동일 학문 분야의 다른 연구주제에 비해 양적 성과가 매우 적은 편이다. 중국 학계에서는 주로 사전학, 문헌정보학, 언어문자학, 컴퓨터공학에서 한자 검색법의 통시적 연구와 새로운 검색법의 개발 등에 관해 연구되었으며, 특히 그 세부 주제인 부수검색에 관해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언어문자학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 검색법에 대한 분석과 함께 글자배열과 검색의 세부 원칙에 관한 미시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¹⁾ 국내 학계에서는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이후에 한문 교육, 국어학, 언어정보학 분야에서 연구되었다. 최근에는 고문헌의 전산화에 따른 한자 검색시스템 구축의 측면에서 연구되었으며,²⁾ 웹 환경에서의 한자 검색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종이사전에서 웹 사전으로의 매체의 혁신이 가져온 검색의 기술적 혁신이 종이사전의 종식을 의미하지 않는다. 웹 사전으로 매체의 전환이 이루어지더라도 종이사전의 관용적 원칙과 체계, 그리고 사용 양식이 고도의 기술로 재현될 수 있다. 한자 색인에서 ‘글자형태(形)’에 기반한 배열법과 검색법은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종 매체 환경의 한자 사전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한자 사전마다 저마다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있으며, 규범 방안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범용할 수 있는 이론적 유용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데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자 대사를 대상으로 글자배열 원칙과 색인에 관해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사용자 지향성의 관점에서 검색에 효율적인 색인의 구성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다음에서 중국 한자학에서 논의된 한자 배열법(字序法)과 중국 교육부에서 제정한 부수 배속(歸部)과 글자배열순서(字序)에 관한 규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漢語大字典』(1990/2010), 『中華字海』(1994), 『漢韓大辭典』(1999~2008), 『高麗大藏經異體字字典』(2000), 『漢字海』(2018) 등 중국과 한국의 한자 대사에 적용된 표제자 배열 원칙과 색인을 비교 분석하여, 고금을 아우르며 전승되고 있는 부수

1) CNKI 주제별 문헌검색의 검색결과 참조(<https://cnki.net>, 2022.12.22. 검색).

2) KISS 통합검색의 검색결과 참조(<https://kiss.kstudy.com>, 2022.12.22. 검색).

색인의 문제점과 효율적인 색인 구성 체계에 관해 검색의 실용성의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Ⅱ. 한자의 배열법(字序法)과 규범

1. 한자의 글자 배열법(字序法)

(1) 한자 배열법(字序法)의 종류

중국에서 한자의 글자배열순서를 지칭하는 ‘字序’는 현대한자학이 학문영역으로 정립되면서 이론적으로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자 사전에 적용된 표제자의 배열법은 한자의 세 가지 요소인 形·音·義에 따라 形序法, 音序法, 義序法으로 구분된다. 자음의 일정한 순서에 따라 글자를 배열하는 音序法은 주로 시가 창작의 참고서인 韻書에서 同韻字에 따라 글자를 분류하여 배열하는 데 적용되었다. 그리고 의미부류에 따라 한자를 분류하여 배열하는 義序法은 전국시대 말기에 편찬된 중국 최초의 사전인 『爾雅』를 비롯하여 『方言』, 『釋名』, 『廣雅』 등에 적용되었다.

形序法은 글자형태의 연관성에 따라 글자를 배열하는 방식이며, 고금 한자 사전의 표제자 배열법의 주류라고 할 수 있다. 형서법의 기본원칙은 부수와 획수이다. 부수는 중국의 東漢 시기에 許慎이 창안한 것이며, 『說文解字』(100)에 수록된 한자들이 공유하는 의미부류를 나타내는 편방(義符) 540개를 선별하여 부수로 삼아 글자를 배열하는 거시적인 틀로 사용한 것이다. 이때 540부의 배열순서는 ‘據形系聯’, 즉 형태의 연관성에 따라 배열하는 원칙이 적용되었는데, 이것이 형서법의 원류이다.

의부를 공유하는 한자들의 표지인 부수의 개념은 南北朝 시기에 편찬된 『玉篇』(543)의 532부로 이어졌다. 이후 金代의 『四聲篇海』(1208)에서는 579개의 각 부수에 속한 글자를 획수에 따라 배열하여 검색이 좀 더 편리하게 되었다. 明代의 『字彙』(1615)에서는 부수를 214개로 대폭 축소하여 획수에 따라 배열하고, 동일 부수에 속한 글자도 획수의 오름자순으로 배열하였다. 이때부터 ‘形·義 연관성’을 통해 부수를 배속할 수 없는 한자는 ‘형태만 고려하고 그 의미는 고려하지 않게(論其形不論其義)’(『字彙』 凡例) 되었고, 부수는 글자의 배열법뿐만 아니라 검색법에도 활용되었다. 『字彙』(1615)에서 정립된 214부의 ‘부수-획수 체계’는 明代의 『正字通』(1628~1644)을 거쳐 清代의 『康熙字典』(1716)에까지 이어졌고 현대 형서법의 기준이 되었다.³⁾

현대 중국의 한자 사전에서 글자의 배열과 검색에서 형서법과 음서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음서법은 주로 漢語拼音 자모순에 따른 배열법이 적용되고 있다. 의서법은 동의어 사전과 같은 특수 목적의 사전에서 표제자 배열에 사용되고 있으나 검색법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사전 색인에서 한어병음 자모순에 따른 음서법이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⁴⁾

3) 森賀一惠, 「漢字檢索法」, 『圖書館文化』 36: 4, 1995, 190쪽, 蘇培成, 『現代漢字學綱要』,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1, 170쪽 참고.

(2) 형서법과 한자 사전의 색인

한자 사전의 색인에서 글자의 ‘음(자음)’보다 ‘形(형태)’이 글자 검색의 기준이 된다. 표음문자는 20~50개 정도의 자모로 구성되므로, 사전에서 표제어는 ‘ABC순’ 또는 ‘가나다순’이라고 말하는 자모순으로 배열되며, 문자가 표상하는 어음 정보로 검색한다. 그러나 표의문자인 한자는 글자형태가 독음을 직접 표상하는 문자가 아니고 단자(單字)의 수량이 많으므로 한자의 3요소인 ‘形·音·義’ 중 ‘形’, 즉 글자형태에 의존한 검색법이 고안될 수밖에 없다. 한자 사전의 표제자 배열에서 자음이 우선 기준으로 채택되기도 하지만, 한자에는 동음자(同音字)가 많으므로 결국 동음자 내에서 글자의 형태적 구성단위에 기반한 검색요소인 부수나 획수를 부차적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일반적인 한자 사전에서 부수를 보면, 일부는 의부(義符)로서 여전히 글자의미와 연관성을 갖지만, 일부는 여러 글자가 공유하는 글자의 구성요소로서 ‘형태’의 일치성만 고려되어 선정된 것이다. 이러한 부수 선정 방식은 明代의 『字彙』(1615)에서 정립된 214부에 기반하여, ‘形-義 연관성’을 지닌 전통 부수를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形-義 연관성’이 소실된 한자는 형태를 고려하여 부수로 채택한 清代의 『康熙字典』(1716)의 214부에서 전승된 것이다. 『康熙字典』(1716)의 한자 배열은 『字彙』(1615)를 계승하여 부수 배열법에 따라 글자를 배열하고 동일 부수의 글자들은 획수의 오름차순으로 배열하는데, 이것을 ‘부수-획수 체계’라고 한다.

이같이 전통 한자 사전의 편찬 체계를 집대성한 『康熙字典』(1716)은 ‘부수-획수 체계’의 합리적인 모델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후대로 오면서 한자 형태의 변화와 부수 선정 기준의 차이로 인해 한자 사전마다 부수의 수량과 내용이 일부 조정되었지만, 대체로 『康熙字典』(1716)의 214부에 기반한다.

한자는 필획, 부진, 편방 등의 조합으로 하나의 글자를 구성하는 형태적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한자의 구성단위는 형서법에 기반한 글자의 배열과 색인에 활용되었다. 부수 체계를 갖춘 최초의 한자 사전인 『설문해자』에서는 부수가 글자배열의 단일 기준으로 적용되었지만, 후대로 오면서 한자의 구성단위와 구성속성이 다면적으로 적용되면서 ‘부수’, ‘획수’, ‘필순-필형’, ‘코드번호(사각호마 등)’ 등이 한자 사전의 표제자 배열과 검색법에 활용되었고, 계층적인 검색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⁵⁾

한자 사전의 표제자 배열과 검색에서 관건은 한자의 어떤 구성요소를 부수로 판단할 것인가와 색인에서 부수, 획수 등의 동일 조건에서 글자를 어떻게 배열해야 검색이 수월한가에 있다. 다음에서 부수 배속(歸部)과 글자배열순서(字序) 원칙에 관하여 중국 언어문자규범의 관련 규정과 5종 한자 대사전에 적용된 원칙을 비교 분석하여 살펴본다.

4) 蘇培成, 앞의 책, 2001, 168쪽.

5) 蔣一前은 「漢字檢字法沿革史略及近代七十七種新法表」(『圖書館學季刊』第4期, 1939)에서 중국의 근대부터 고안된 한자 검자법(檢字法) 77종을 소개하였다. 그중 대표적인 성과에는 林語堂의 「創設“漢字索引制”議」(『科學』第10期, 1917), 王雲五의 「四角號碼檢字法」(『東方雜誌』第3期, 1926), 萬國鼎의 「修正漢字母筆排列法」(『圖書館學季刊』第2期, 1926), 蔡元培의 「介紹直橫斜檢字法」(『現代學生』第4期, 1934) 등이 있다(袁世旭, 「我國漢語辭書排檢體例演變的研究綜述」, 『漢字文化』3, 2011, 50쪽 참고).

2. 부수 배속(歸部)과 글자배열순서(字序)의 규범

(1) 부수 배속 규범(歸部規範)

부수 배속(歸部)은 한자 낱글자의 구성요소 중에서 부수를 판단하여 글자를 부수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글자 내부의 구성요소 중에서 부수를 식별해내는 것이며, 540개, 214개의 부수를 설정하는(立部) 부수 선정과 구분된다.

중국 교육부는 한자의 정보 처리, 사전 편찬, 배열과 검색, 교육 등 여러 영역에서 통일된 부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漢字部首表』(2009)를 제정하였다.⁶⁾ 이 부수표에는 主部首 201개와 附形部首 99개가 수록되어 있는데, 주부수는 각 부수의 여러 형태 중 대표 자형을 말하며, 부형부수는 번체와 변형 등 쓰기 형식에 따라 형성된 부수의 변이형을 말한다. 같은 해에 제정된 부수 배속(歸部) 규범인 『GB13000.1字符集漢字部首歸部規範』(2009, 이하 『歸部規範』)에는 부수 배속 원칙에 관한 설명과 함께 이 원칙에 따라 한자 20,902자를 부수별로 배속한 표가 수록되어 있다.

『歸部規範』(2009: 2)의 ‘5. 部首歸部規則’에는 5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5가지 원칙에 적용된 한자 형태구성의 주요 속성은 ‘결합구조’와 ‘편방의 위치(배치)’이며,⁷⁾ ‘필획’과 ‘획수’가 부차적으로 적용되었다. 여기에서 한자의 결합구조는 좌우(左右) 결합구조(口), 상하(上下) 결합구조(日), 내외(内外, 또는 包圍) 결합구조(回, 田, 四, 日, 日, 日, 日)의 4가지 기본 결합구조를 말하며, 각 결합구조에서 ‘편방의 위치’가 부수 배속(歸部) 원칙의 주요소가 된다. 『歸部規範』(2009)에 수록된 부수 배속(歸部)의 5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한자의 左, 上, 外를 부수로 취한다. 만약 左와 右, 上과 下, 外와 內가 모두 부수라면, 左, 上, 外를 부수로 취한다. 예: 彬(木)*, 裹(亠)*, 圓(口), 聞(門).⁸⁾
2. 한자의 左, 上, 外가 부수가 아니고 右, 下, 內가 부수라면, 후자를 부수로 취한다. 예: 穎(頁)*, 荊(刀)*, 彎(弓), 島(山).
3. 한자의 左와 右, 上과 下가 모두 부수가 아니라면, 각 편방에서 左→右, 上→下의 순으로 부수에 해당하는 것을 취한다. 예: 鑊(皿)*, 蠱(虫), 釐(支), 羸(月)*.
4. 위의 원칙에 따라 부수를 선정할 수 없는 글자는 제1획(起筆)을 부수(單筆部首)로 취한다. 예: 暢(丨)*, 粵(ノ)*, 举(丿), 三(一), 果(丨)*, 我(ノ)*, 良(丿)*, 乖(ノ)
5. 부수를 취하려는 위치에서 획수가 다른 몇 가지 부수가 겹쳐져 있다면, 획수가 많은 부수를 취한다. 예를 들어, 龔의 左上 위치에서 丿, 亠, 立, 音 등 겹쳐져 있는 부수 중 획수가 많은 音을 취한다. 靡의 外(外框)의 위치에서 丿, 广, 麻 등 겹쳐져 있는 부수 중 麻를 취한다. 威의 제1획

6) 『漢字部首表』(2009)의 附形部首를 보완·수정하고 상용부수의 명칭과 국제 코드번호를 명시한 『漢字部首表』(2002)가 새로 제정되어 2022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7) 유니코드(Unicode)에서 한자의 결합구조는 12가지 ‘표의문자 구조표현 문자부호(表意文字描述字符, Ideographic Description Characters)’로 나타낸다. 아래아한글의 유니코드 문자표에서는 ‘한자 생김꼴 지시부호’로 지칭하고 있다.

8) 『歸部規範』(2009)의 예시는 각 항목에서 발췌하였고, 각 예시의 괄호 안에 부수를 표기하였다. *표는 일반 한자 사전의 부수와 다른 것을 표시한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起筆)의 위치에서 一과 戈 등 겹쳐져 있는 부수 중 戈를 취한다. 太의 제1획(起筆)의 위치에서 一, 大 등 겹쳐져 있는 부수 중 大를 취한다.

『歸部規範』(2009: 2)에 수록된 부수별 글자 배속표에서 부수는 『漢字部首表』(2009)의 부수 순서에 따라 배열하고, 부수별로 배속된 동일 부수의 글자는 『GB13000.1字符集漢字字序(筆畫序)規範』(1999)의 글자배열순서를 따른다. 위의 5가지 부수 배속 원칙을 적용하려면, 『漢字部首表』(2009)의 201부에 대한 선행 학습이 필요하다.⁹⁾

(2) 글자배열순서 규범(字序規範)

중국 교육부는 한자의 글자배열순서를 정하는 원칙을 언어문자규범(GF 3003-1999)으로 제정하였는데, 이것을 『GB13000.1字符集漢字字序(筆畫序)規範』(이하 『字序規範』)라고 한다.

이 규범의 ‘4. 漢字字序定序規則’에 의하면, 한자의 글자배열순서는 획수(筆劃數), 필순(筆順), 주부필형(主附筆形), 필획조합관계(筆劃組合關係), 결합방식(結構方式) 등에 관한 5가지 원칙을 따른다. 획수의 조건이 같은 한자가 여러 개라면 나머지 4가지 원칙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글자배열순서를 정한다. 『字序規範』에서 규정한 ‘획수 원칙’은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획수의 오름차순이지만, 나머지 4가지 원칙은 동일 조건에서의 세칙까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필순의 원칙’은 획수가 일치할 때 필순에 따라 5가지 기본 필형인 一(橫/提), 丨(豎/豎鉤), 丿(撇), 丶(點/捺), ㇀(折)의 오편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오편형의 순서대로 배열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필형과 필순을 결합하여 적용하므로 본문에서는 ‘필순-필형 원칙’으로 지칭한다. 예를 들어, 二, 十, 厂, 乃, 又의 배열 원칙은 다음과 같다. 모두 총획이 2획으로 획수 조건이 일치하므로, 제1획의 필형이 모두 一(橫)인 二, 十, 厂, 다음에 ㇀(折)인 乃와 又를 배열하고, 각 글자의 제2획에 다시 오편형의 순서를 적용하여 배열한 것이다.

필순-필형의 원칙도 일치하면, 필순에 따라 ‘주부필형(主附筆形) 원칙’의 세칙(4.3.1, 4.3.2)을 적용하여 배열순서를 정한다.¹⁰⁾ 이 세칙에 의하면, 필형이 橫, 豎, 點인 것은 주필형(主筆形)을 부필형(附筆形)보다 먼저 배열하고, 절필(折筆)은 ‘절점(折點: 획이 꺾인 지점) 수량’의 오름차순으로 배열한다(예: 刀→乃). 절점의 수량도 일치하면, 제1획 필형이 一(橫), 丨(豎), 丿(撇), 丶(點)인 순서대로 배열하고, 이 조건도 일치한다면 절필 다음 획에 오편형 순서를 적용하여 배열한다. 예를 들어, 凡과 及은 [획수: 3획], [필순-필형: 丿→㇀→丶], [절점 수량: 2], [제1획: 丿]이라는 조건이 모두 일치하므로, 절필 다음 획에 오편형의 순서를 적용해서 선후를 정해야 한다. 凡과 及의 절필 다음 획인 丶(點)과 ㇀(捺)은 모두 오편형의 ‘點’에 속하지만, ‘필순 원칙의 세칙’에 의하면 주필형인 ㇀을 부필형인 ㇀보다 먼저 배열해야 하므로 이 두 글자의 순서는 ‘凡→及’이다.

9) 『歸部規範』(2009: 1)의 부수 규범은 『漢字部首表』(2009)에 근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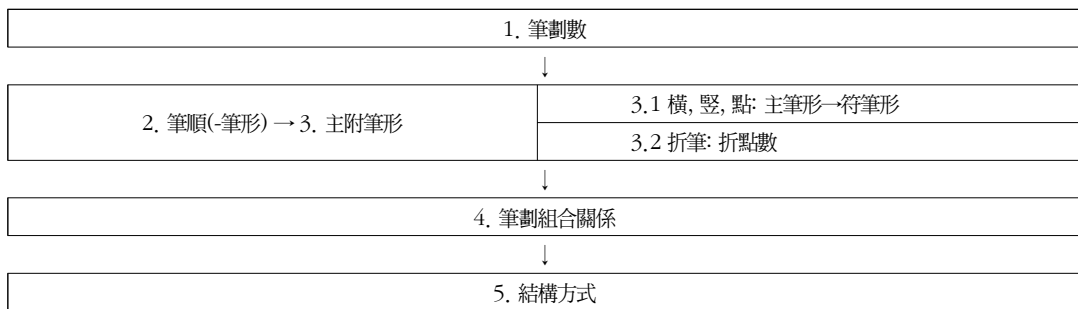
10) 『字序規範』(1999)에 수록된 ‘4.3 主附筆形規則’의 세칙인 ‘4.3.1 橫豎點主附筆形’에 의하면 橫, 豎, 點은 主筆形에서 附筆形의 순으로 배열한다. 예를 들어, 一(橫, ‘子’)→㇀(提, ‘子’), 丨(豎, ‘干’)→丨(豎鉤, ‘干’), 丶(點, ‘夕’)→㇀(捺, ‘久’), ㇀(捺)→㇀(橫斜鉤) 등과 같이 배열한다. 主筆形에 대응하는 附筆形은 본 규범의 ‘3.2 筆形’의 설명을 참고할 수 있다.

주부필형(主附筆形) 원칙도 일치하면, 필순에 따라 ‘필획조합관계(筆劃組合關係)의 원칙’에 따라 배열한다. 본 규범의 3.5에 의하면 필획조합관계는 두 획이 서로 분리(相離), 연접(相接), 교차(相交)하는 관계를 말하며, 필획의 조합이 ‘분리(相離) → 연접(相接) → 교차(相交)’인 순서로 배열한다.¹¹⁾

끝으로 획수, 필순, 주부필형, 필획조합관계가 완전히 일치하면, ‘결합구조(結構方式)’를 적용하여 左右 → 上下, 左中右 → 上中下, 上下 → 內外(包圍)의 순서로 배열한다. 결합구조가 일치하더라도 글자의 크기가 다르다면, ‘口→口’와 같이 크기가 작은 것을 큰 것보다 먼저 배열한다.

이같이 『字序規範』(1999)의 원칙에 활용된 한자 형태구성의 속성은 필획, 필순-필형, 필획조합, 결합방식이다. 『字序規範』(1999)의 글자배열순서에 관한 원칙을 운용하는 순서도는 다음과 같다.¹²⁾

〈표 1〉『字序規範』(1999)의 글자배열순서 원칙 적용 순서도



Ⅲ. 한자 사전의 표제자 배열 원칙과 색인 구성 분석

1. 표제자 배열 원칙과 색인의 비교

(1) 표제자 배열의 원칙

한자 사전에서 표제자 배열의 기본 틀로 적용하는 부수는 대체로 『康熙字典』의 214부를 그대로 따르거나, 사전에 따라 214부를 기초로 가감되어 조정되었다.¹³⁾

분석 대상인 5종 한자 대사전 중에서 『漢韓大辭典』(1999~2008)과 『高麗大藏經異體字字典』(2000)은 『康熙字典』의 ‘부수-획수 체계’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체자 자전이라는 특수성을 지닌 『高麗大藏經異體字字典』(2000)에서는 정자(正字) 다음에 이체자(異體字)를 배열하고 있으며, 정자(正字)의 글자배열순서도 『康熙

11) 『字序規範』(1999: 4)의 ‘4.4. 筆劃組合關係規則’ 참조.

12) 『字序規範』(1999: 4)에서는 원칙2와 원칙3을 종적으로 배열하고 있지만, 원칙3의 ‘主附筆形’은 ‘필순-필형’ 원칙에 그 세칙으로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본문의 〈표 1〉에서는 횡적 배열로 변경하였다.

13) 『康熙字典』의 214부 체계가 한자 사전 부수 체계의 기반이 되는 이유에 관해서는 본문의 ‘1-(2)’에서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字典』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漢語大字典』(2010)은 『康熙字典』의 214부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병합하여 200부로 정리하였고,¹⁴⁾ 『中華字海』(1994)는 당시 한자 사전에서 채택한 부수 상황을 참조하여 『康熙字典』의 214부를 기초로 일부를 삭제하거나 병합하여 210부로 조정하였다(凡例 24, p.8). 그리고 가장 많은 표제자를 수록하고 있는 『漢字海』(2018)에서는 214부를 가감하거나 병합하여 266부로 조정하였다.¹⁵⁾ 이러한 부수의 조정은 각 사전에 수록된 표제자의 내용과 수량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음 <표 2>의 부수 수량에서 『康熙字典』의 214부를 그대로 따른 것은 [K]로 표시하고, 『康熙字典』의 부수를 기초로 부수를 조정한 것은 [K']로 표시하였다.

<표 2> 5종 한자 대사전의 표제자, 부수, 색인 가짓수

구분	한자 사전	출판연도	표제자 수량	부수 수량	색인 가짓수	국가
A	『漢語大字典』	1990/2010	60,370	200[K']	2	【中】
B	『中華字海』	1994	85,568	210[K']	3	【中】
C	『漢韓大辭典』	1999~2008	약 55,000	214[K]	3	【韓】
D	『高麗大藏經異體字字典』	2000	29,478	214[K]	4	【韓】
E	『漢字海』	2018	102,434	266[K']	2	【中】

앞에서 살펴본 『字序規範』(1999)에 의하면, 글자배열순서는 획수(筆劃數), 필순(筆順), 주부필형(主附筆形), 필획조합관계(筆劃組合關係), 결합방식(結構方式) 등 5가지 원칙이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여기에서 필순은 필형과 결합한 ‘필순-필형’의 원칙이 적용된 것이며, 주부필형(主附筆形)도 이 원칙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규범과 5종 한자 대사전의 표제자 배열순서에 관한 원칙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 『字序規範』(1999)과 5종 한자 대사전의 글자배열순서 원칙 비교

구분	글자배열원칙	字序規範	A	B	C	D	E
1	부수	—	○	○	○	○	○
2	획수	○	○	○	○	○	○
3	자음	—	—	—	○	—	—
4	필순-필형	○	○	○	—	○	○
5	필획조합관계	○	—	—	—	—	—
6	결합방식	○	—	—	—	—	—

14) 『康熙字典』의 부수에서 亅, 二, 爻, 玄, 用, 内, 舛, 𠂔 등의 8개가 삭제되었고, 匚, 入, 土, 攴, 日, 行의 6개는 匚, 人, 土, 攴, 日, 彳에 병합되었다(『漢語大字典』 2010, 凡例, p.19).

15) 『康熙字典』 부수에서 二, 月, 内, 𠂔, 爻, 兀, 舛, 用, 玄, 行, 𠂔 등이 삭제되었고, 匚, 𠂔, 巳, 卅, 冂, 冈, 小, 申, 甲, 由, 𠂔, 𠂔, 民, 光, 𠂔, 虎, 𠂔 등을 새로 부수로 설정하였다(『漢字海』 2018, 凡例, pp.5~6).

〈표 3〉을 보면, 5종 한자 대사전에서는 필획조합관계(筆劃組合關係), 결합방식(結構方式)이 표제자의 배열 원칙에 적용되지 않았으며, 부수와 획수가 그 기본원칙임을 알 수 있다.

동일 부수와 동일 획수인 글자들은 ‘필순-필형의 원칙’을 따르는데, 필순에 따라 오편형의 순서를 적용하는 것이다. 『字序規範』(1999)의 ‘필순의 원칙’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오편형은 一(橫/提), 丨(豎/豎鉤), 丿(撇), 丶(點/捺), ㇏(折)의 5가지 기본 필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제1획의 필형에 따라 이 5가지 필형의 순서로 글자들을 배열하고, 획수와 제1획의 필형의 조건이 모두 일치하면, 제2획부터 필순에 따라 순차적으로 오편형을 적용하여 배열한다. 『漢語大字典』(2019, 凡例 29번)은 이와 같은 원칙을 적용하고 있지만, 다른 사전에서는 ‘필순-필형’의 기본원칙은 같으나 사전에 따라 세부 내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中華字海』(1994, 凡例 22번)에 적용된 필순-필형 원칙은 그 기본 내용이 같지만, 부필형에 관한 기준에서 차이를 보인다. 『字序規範』(1999)에서는 丨(豎鉤)을 주필형인 丨(豎)의 부필형으로 간주하였지만, 『中華字海』(凡例 23번)에서는 제1획이 丨인 글자는 모두 乙(㇏, 折)에 귀속하였다. 그리고 『漢字海』(2018, 凡例)에서는 부수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의 제1획부터 ‘필순-필형’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국내의 일반적인 한자 사전의 색인에는 ‘필순-필형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高麗大藏經異體字字典』(2000, 일러두기)에서는 이체자 총획색인에서 동일 획수인 이체자에 ‘필순-필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획수와 제1획의 필형이 일치하면, 제2획의 필형에 따라 분류하고, 제2획의 필형이 일치하면 필순-필형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출처순으로 배열하였다.

『漢韓大辭典』에서는 동일 획수인 글자들을 자음의 ‘가나다순’으로 배열하는 원칙이 적용되었다(표 3-C). 그 세부 내용을 보면 동일 획수에서 자음이 미상인 글자들은 자음에 따라 배열한 글자들의 마지막 부분에 『康熙字典』의 표제자 수록 순서에 따라 배열하였다. 그리고 자음이 2개 이상일 때는 대표 자음을 기준으로 배열한다는 세칙을 두고 있다(일러두기, II-1).

(2) 색인의 종류와 구조

한자 사전에서 색인은 검색법의 가짓수에 따라 ‘단일 색인’과 2가지 이상의 ‘다중 색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자의 색인에는 형서법에 기반한 부수검색, 획수검색, 사각호마(四角號碼) 검색과 음서법에 기반한 자음검색이 보편적으로 활용되었으며,¹⁶⁾ 대부분의 한자 사전에서는 다중 색인을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평균 12획 정도로 구성된 한자의 복잡한 형태구조, 표음 기능의 불완전성 등의 문자적 속성과 자음, 부수, 획수 등 한자 정보에 대한 사전이용자의 인지 여부를 고려한 것이다.

분석 대상의 5종 한자 대사전의 색인 구성에 나타내는 공통된 특징은 ‘다중 색인’과 ‘검색요소의 계층 구조’이다.

16) ‘사각호마(四角號碼)’는 숙련되면 매우 신속하게 한자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법이지만, 분석 대상의 5종 한자 대사전의 색인에서 모두 채택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일반 사용자가 한자 형태에서 네 모퉁이에 해당하는 필형을 분석하는 것이 어렵고, 오편형의 필형마다 주필형에 속하는 부필형과 오편형에 대응하는 번호를 암기해야 검색할 수 있는 난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색인의 종류는 ‘부수색인’, ‘총획색인’, ‘자음색인’의 세 가지로 구분되며, 『漢字海』(E)를 제외하고 이러한 형서법 및 음서법 기반의 색인을 모두 채택하고 있다.

색인 구성에서 검색요소는 대체로 2단계의 계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부수색인’에서는 [획수를 하위 검색요소로 취하였고, ‘총획색인’에서는 [부수], [필순-필형], 그리고 [정자(正字) 번호]를 하위 검색요소로 취하였다.¹⁷⁾ 한편 ‘자음색인’에서는 [부수], [획수], [필순-필형], [한어병음 음절 자모], [정자(正字) 번호] 등을 하위 검색요소로 취하였고, 『漢語大字典』의 자음색인에서는 3단계와 4단계에서 [획수와 [필순-필형]을 각각 명시되지 않은 묵시적 검색요소로 취하였다.

〈표 4〉 5종 한자 대사전의 색인 비교

구분	색인/검색요소				A	B	C	D	E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	부수	a. 획수	[韓]한자음	—	—	—	○▲	—	—
		b. 획수	—	—	—	—	—	○[正]	—
		c. 획수	필순-필형	—	—	—	—	—	○▲
2	획수	a. 부수	[韓]한자음	—	—	—	○▲	—	—
		b. 제1획 필형	—	—	—	○▲	—	—	○▲
		c. 제1, 2획 필형	—	—	○▲	—	—	—	—
		d. 제1, 2획 필형번호	—	—	—	—	—	○[異]▲	—
		e. 정자(正字) 번호	—	—	—	—	—	○[正]	—
3	자음	a. 부수	획수	—	—	—	○	—	—
		b. 한어병음 음절 자모	획수	필순-필형	○▲	—	—	—	—
		c. 한어병음 음절 자모	—	—	—	○▲	—	—	—
		d. 정자(正字) 번호	—	—	—	—	—	○[異]	—

일반적으로 한자 사전에서 색인의 구성은 1단계와 2단계의 검색요소를 명시하고 2단계에서 해당하는 글자목록을 분류하여 배열하고 있다. 〈표 4〉에서 ▲표는 각 한자 사전의 색인 구성에서 검색요소가 2단계까지 직접 명시된 것을 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漢語大字典』(A)의 筆劃檢字表에서는 [획수와 [필순-필형]의 검색요소를 명시한 2단계 계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단계의 [필순-필형]별로 표제자가 배열되어 있다(그림 1). 1단계에서는 一劃, 二劃

17) 〈표 4〉에서 『高麗大藏經異體字字典』의 ‘정자 총획수순 색인’(표 4-2-e)과 ‘이체자의 자음순 색인’(표 4-3-d)에서 제2 층위의 검색요소인 ‘정자(正字) 번호’는 『康熙字典』의 표제자로 수록된 순서에 따라 본 사전에 수록된 이체자에 대응되는 정자(正字)에 번호를 부여한 것이다.

과 같이 [획수]를 명시하고, 2단계에서는 동일 획수의 글자들을 [필순-필형]에 따라 배열하고 있다(표 4-2-c). 2단계의 [필순-필형]은 총획이 5획~28획인 글자들은 【—】, 【— |】, 【— /】, 【— \】, 【— ˊ】과 같이 필순-필형 원칙을 적용한 [제1, 2획 필형]을 명시하여 해당 글자목록을 배열하고, 나머지 1획~4획과 29획 이상은 【一】, 【丨】, 【/】, 【\】, 【ˊ】과 같이 [제1획 필형]을 오픈형 순서대로 명시하고 해당 글자목록을 배열하였다. 그리고 제1획과 제2획의 필형이 같다면, 필순에 따라 나머지 획에 오픈형 순서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배열하였다.

[illegible]

〈그림 1〉 『漢語大字典』 ‘筆劃檢字表’

[illegible]

〈그림 2〉 『中華字海』 ‘筆劃檢字表’

〈표 4〉와 같이 총획색인에서 2단계 검색요소로 [필순- 필형]을 명시한 『中華字海』(B), 『漢字海』(E)와 『高麗大藏經異體字典』(D)은 표기 형식이 다르다. 『中華字海』(B)와 『漢字海』(E)의 총획색인에서는 [획수]→[제1 필형]별로 구분하여 글자를 배열하였지만,¹⁸⁾ 『高麗大藏經異體字典』(D)에서는 5획~25획의 이체자들을 [획수]→[제1, 2 필형번호]별로 구분하여 배열하였다. 여기에서 ‘필형번호’는 오필형의 기본 배열순서에 따라 각 필형을 숫자로 대체하여 표기한 것이다. 예를 들어, 동일 획수 내에서 [필순- 필형]을 (1.1), (1.2), (1.3), (1.4), (1.5)와 같이 표기하여 해당 글자를 구분하여 배열하였는데, 이것은 각각 『漢語大字典』의 【一—】, 【一丨】, 【一ノ】, 【一丶】, 【一ㄣ】에 대응한다.

음서법을 활용한 자음색인은 『漢語大字典』(A), 『中華字海』(B), 『漢韓大辭典』(C), 『高麗大藏經異體字』(D)에서 채택되었다. 『漢語大字典』(A)의 音序檢字表에서는 [자음: 한어병음 어두 자모(ABC순)] → [한어병음 음절 자모(ABC순)] → 성조(陰平, 陽平, 上聲, 去聲, 輕聲) → [총획(오름차순)] → [필순·필형]의 4단계의 검색 요소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글자를 배열하였다. 이것은 현대 중국의 한자 사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전형적인 음서법의 원칙이다.

18) 『漢字海』(2018)의 凡例(檢索方法1.3, p.4)에 의하면, “획수와 제1획 필형이 일치하면, 一, 丨, 丿, ㇏, 乙의 순서로 단자의 제2획, 제3획의 필형이 출현하는 순서를 찾는다. 예를 들어, 10획 一(横) 아래에는 이러한 순서로 배열한다. ‘挈(——), 珣(——丨), 蜚(——丿), 埤(——丨), 𡇗(——丨)’. ” 그러나 실제 색인에서는 [제1, 2, 3 필형] 형식의 검색요소별로 글자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제1 필형]별로 구분되어 있다.

『中華字海』(B)의 ‘音序檢字法’에서는 1단계에서 각 자음의 [한어병음 어두 자모]의 ABC순으로 구분하고, 자음의 [한어병음 어두 자모]가 같다면, 2단계에서 [한어병음 음절 자모]의 ABC순에 따라 글자를 배열하였다. 그러나 그다음 단계의 검색요소가 분명하지 않고 음절이 같은 글자들이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예를 들어, [A]의 제2 층위에서 [ai]에 배속된 첫 글자인 哀(p.133, 口部-6획, 총 9획)부터 銀(p.1536, 钅部-9획, 총 14획), 銀(p.1536, 金部-9획, 총 17획), 唉(p.397, 口部-7획, 총 10획), 埃(p.228, 土部-7획, 총 10획), 哎(p.386, 口部-6획, 총 8획)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이처럼 부수, 획수, 필순-필형 등의 검색요소가 불규칙적으로 적용되어 있어서, 자음이 일치하는 동일 조건에서 글자를 검색하기가 쉽지 않다.

『漢韓大辭典』(C)의 자음색인에서는 [한국 한자음]→[부수]→[총획]의 세 가지 검색요소에 따라 글자를 배열하였지만, 1단계의 [한국 한자음]만 검색요소로 명시하여 가나다순의 배열법에 따라 구분하여 글자를 배열하였다.¹⁹⁾ 이것은 이 사전의 부수색인과 총획색인에서 2단계까지 구분하여 명시한 것과 다르다. 『高麗大藏經異體字典』(D)에서 자음색인은 이체자 검색에 적용하고 있으며 1단계에서 [한국 한자음]의 가나다순으로 배열하고, 총획색인과 같이 2단계에서 [정자(正字) 번호]를 묵시적 검색요소로 설정하였다.

2. 색인의 구성과 검색의 효율성

(1) 부수검색의 난점

〈표 4〉에서 5종 한자 대사전의 색인을 비교 분석한 결과, 〈표 3〉에서 정리한 글자배열순서(字序)의 기준인 부수, 획수, 자음, 필순-필형이 사전과 색인의 종류에 따라 검색요소로 적용되었고,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검색요소를 단계적으로 적용해서 검색의 범위를 좁혀놓았다. 다만, 대부분의 한자 대사전이 글자배열순서의 원칙으로 ‘부수’와 ‘획수’를 적용하고 있지만, 일부 한자 대사전의 ‘색인’에서는 ‘부수’가 검색요소로 적용되지 않았다.

『漢語大字典』(1990/2010)과 『中華字海』(1994)의 색인에서는 [부수]를 검색요소로 채택하지 않고, 표제자 배열에 적용한 부수에 대한 ‘部首表’를 수록하였다. 『中華字海』의 색인에서는 별도의 부수색인이 없으나, 범례에서 글자 내부에 구성된 위치에 따라 부수를 선택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凡例, 15. 查字方法). 『漢字海』(2018)의 색인에서는 ‘부수검자표’를 ‘필획검자표’의 뒤에 편성하고 ‘부차적 검자법’이라고 밝히고 있다(凡例, p.4).²⁰⁾

이같이 일부 중국 한자 대사전의 색인에서 [부수]를 제1 검색요소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부수 배속의 모호성’이 부수검색법의 난점임을 방증한다.

『字序規範』(1999)과 『歸部規範』(2009)에 의하면 본 규범이 ‘한자의 정보 처리, 배열과 검색, 사전 편찬,

19) 『漢韓大辭典』(索引)의 字音索引의 설명에 의하면, “음이 둘 이상인 글자는 각각의 음 자리에 글자를 모두 배열하였다.”

20) 『漢字海』(2018)의 凡例에서 획수는 『GB13000.1字符集漢字字序(筆劃序)規範』(1999)를 참고했다고 밝히고 있다(凡例, p.4). 부수 배속의 규범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凡例에서 기술한 부수 검색법에 관한 설명(部首查字方法說明)을 보면 부수 배속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歸部規範』(2009)를 따르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한자 교육' 등에 사용되기에 적합하다고 설명하였다.²¹⁾ 이처럼 한자의 글자배열순서(字序)와 부수 배속(歸部)의 규범이 제정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 편찬된 중국 한자 사전의 표제자 배열과 색인에 적용되었을 것 같지만, 사전마다 세부 내용에서 차이를 보인다.²²⁾ 특히 부수와 관련하여 글자의 어떤 구성요소를 선택하는가에 문제에 관해서는 『歸部規範』(2009)의 원칙을 모두 일관성 있게 따르고 있지는 않다.

『中華字海』와 『漢字海』의 범례에서는 부수 배속(歸部) 원칙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지만, 『歸部規範』(2009)의 원칙과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²³⁾ 이러한 규범이 한자 사전에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사전은 글자 검색이라는 실용성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중국의 언어문자구범으로서 제정된 부수 배속(歸部) 규범의 적용 범위는 컴퓨터 정보 처리 등 한자 사용의 사회적 적용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세부 원칙까지 매우 정밀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형태 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한 모든 한자에 적용될 수 있는 이론적 유용성을 완벽하게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歸部規範』(2009)의 문제점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단일자(獨體字)의 부수와 관용적 부수에 관한 처리의 문제이다. 『歸部規範』(2009)의 부수는 자음 또는 자의에 대한 정보가 없더라도 결합구조에서의 편방의 위치를 고려한 기본원칙에 따라 '한자 형태 내부에서 시각적으로 분리'되고 '부수로 선정된 구성요소'를 추출한 것이다. 그러나 한자 내부의 분리 경계선이 없는 단일자(獨體字)인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 내부에서 공간적으로 분리 경계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두 개의 편방이 하나의 획으로 연결된 글자 또한 두 개의 편방으로 인식하기 쉬우므로 일반 사용자가 이 규범에 의한 부수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상용한자의 부수는 오랫동안 관용적 부수로 인식하고 있어서 『歸部規範』(2009)의 규정이 오히려 혼란을 가져다줄 수 있다.

예를 들어, 『歸部規範』(2009)의 '5. 漢字部首歸部規則'의 제4항에 의하면 果의 부수는 제1획인 '丨'이다. 그 이유는 果가 두 개의 편방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필순 규범에 의하면 제6획인 丨이 상하를 관통하는 단일자(獨體字)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果를 '田'과 '木'의 두 편방이 맞닿은 상하 결합구조(田木)로 보고 관용적으로 '木'을 부수로 판단할 수 있고, 제1항의 규칙에 따라 上의 위치에 있는 '田'을 부수로 판단할 수도 있다(표 5, '20. 果' 참조).²⁴⁾

또 다른 예로, 제4항에 의하면 暢의 부수가 제1획인 '丨'인 것은 좌우 결합구조(氵申)에서 부수에 해당하는

21) 『字序規範』(1999) '1.2 適用範圍': "本規範主要適用於漢字的信息處理、排序檢索、辭書編纂等方面。"; 『歸部規範』(2009) '1. 範圍': "本規範適用於中文信息處理領域漢字排序檢索, 也可供辭書編纂和漢字教學參考。"

22) 陳春風(2007)은 『漢語大字典』과 『漢語大詞典』의 문제점에 관해 글자의 '부수 선정 불일치', '획수의 오류', '필순의 차이', '글자배열순서(檢字表字序)의 차이' 등을 지적하였다. 색인에서 글자배열순서가 다른 이유에 관해 필순에 대한 인식의 차이, 표준 글자체 선정의 차이, 필순-필형에 관한 세부 원칙의 미비와 불일치 등 몇 가지로 구분하여 예를 들어 설명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印刷通用漢字字形表』(1965)와 『GB13000.1字符集漢字字序(筆劃序)規範』(1999) 등에서 제시한 표준 글자체와 필순, 획수의 원칙을 준거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陳春風, 「《漢語大字典》、《漢語大詞典》部首檢字中的若干問題」, 『求索』 5, 2007, 188~190쪽).

23) 『歸部規範』(2009)에서는 한자 낱글자의 구성요소 중에서 부수를 선택하는 원칙을 총 5가지로 설명하고 세부 원칙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 규범보다 15년 먼저 출판된 『中華字海』(1994)에서는 한자에서 부수를 찾는 원칙을 총 7가지로 설명하였고, 9년 후에 출판된 『漢字海』(2018)에서는 총 8가지 원칙을 설명하였다.

24) 〈표 5〉에서 '11. 鬻', '12. 釐', '18. 粵', '20. 果', '22. 良'은 5종 한자 대사전에서 모두 『康熙字典』의 부수를 따르고 있다.

편방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각적으로 분리된 구성요소를 부수로 선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결합구조에서의 위치가 左, 上, 外인 것을 우선 선택한다는 원칙에 따라 申의 부수이기도 하면서 형태가 유사한 ‘田’에 申을 부형부수(附形部首)로 귀속하여, 暢을 田부에 배속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자 결합구조에 대한 인식과 판단의 문제이다. 『歸部規範』(2009)은 한자 결합구조에서의 부수의 위치를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결합구조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 위치에 따른 부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제2항에 의하면 穎(穎)의 부수가 ‘頁(頁)’인 것은 穎(穎)이 좌우 결합구조()이고 左가 아닌 右의 위치에 있는 편방이 부수이기 때문이다. 이 글자를 左右 결합구조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결합구조를 판단할 때 ‘글자 내부에서 길이가 긴 분리 경계선을 기준으로 左와 右, 上과 下의 결합구조로 구분’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歸部規範』(2009)에는 이 원칙이 설명되어 있지 않다.

또 다른 예로, 제2항의 또 다른 예시인 瞿의 부수가 ‘又’인 것은 이 글자를 瞿와 又가 조합된 상하 결합구조()로 보고 上에 구성된 瞿가 부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下에 구성된 又를 부수로 취한 것이다. 『漢字部首表』(2009)의 201부에 의하면 隹와 又가 부수에 해당한다. 길이가 긴 분리 경계선을 결합구조의 위치 구분의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이 글자를 상중하 결합구조()로 볼 수 있고, 隹를 부수로 취할 수도 있다.

제3항에 의하면 𪔐의 부수인 ‘田’은 左右, 上下에 구성된 편방이 모두 부수가 아니라서 위치에 따라 左→右, 上→下의 순으로 부수에 해당하는 편방을 취한 것이다. 𪔐를 좌중우 결합구조()로 보고 左, 中, 右의 편방 중 부수에 해당하는 중앙에 있는 女를 부수로 취할 수도 있다. 그리고 釐는 글자 내부에서 차지하는 편방의 비중을 고려해서 𪔐와 里가 조합된 내외 결합구조()로 보고 ‘里’를 부수로 취할 수 있다. 분석 대상의 5종 한자 대사전에서는 모두 𪔐와 釐를 각각 ‘女’부와 ‘里’부로 배속하였다(표 5-11, 12 참조).

〈표 5〉는 『歸部規範』(2009)의 ‘5. 部首歸部規則’에서 제시한 항목별 예시 중 『康熙字典』의 부수와 다른 글자를 대상으로 5종 한자 대사전의 부수와 비교한 것이다. 표의 ‘規範部首’ 열에서 각 부수 앞에 표기된 숫자는 『歸部規範』(2009)에 수록된 ‘5. 部首歸部規則’의 항목 번호이고, ‘예시’에서 []로 표시한 글자는 『歸部規範』(2009) 예시 중 간화자(簡化字)에 대응하는 번체자(繁體字)이며, 본 규범의 원칙에 따라 부수를 판단하여 보충한 것이다.²⁵⁾

〈표 5〉에 제시된 각 한자의 부수를 비교해보면, 『歸部規範』(2009)과 『康熙字典』의 부수는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다.²⁶⁾ 이것은 『歸部規範』(2009)에서 부수 배속의 기본원칙으로 글자형태 내부에 구성된 위치가 기준으로 적용되었고, 『康熙字典』은 전통 한자 사전의 形-義 연관성에 따른 부수 선정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25) 𪔐와 𪔐은 한국과 중국의 표준 자형이 달라서 형태에 따라 획수가 다르다. ‘03. 舊’와 ‘05. 暮’, ‘08. 荆’에 구성된 𪔐은 한국은 4획의 𪔐이고 중국은 3획의 𪔐이고, ‘13. 𪔐’에 구성된 𪔐은 한국은 4획의 𪔐이고 중국은 3획의 𪔐이다. 따라서 𪔐과 𪔐이 부수인 글자는 한국과 중국의 한자 사전에서 [획수] 검색의 결과가 다르다.

26) 『歸部規範』(2009)와 『康熙字典』의 부수가 일치하는 것은 ‘15. 𪔐’과 ‘17. 暢’의 두 글자뿐이며, 이 두 글자는 본 규범에서 간화자로 제시되어 있다.

〈표 5〉 5종 한자 대사전의 부수색인 예시

NO	예시	規範部首	康熙字典	A	B	C	D	E	부수종류
01	彬	1. 木	彡	彡	木	彡	∅	彡	2
02	旧	1. 丨	[舊-簡]	日	日	日	∅	日	2
03	[舊]	1. 艹	臼	臼	艹	臼	艸	艹	2
04	裹	1. 亠	衣	衣	亠	衣	衣	衣	2
05	暮	1. 艹	日	日	艹	日	∅	艹	2
06	颖	2. 页	禾	頁	頁	∅	∅	頁	2
07	[穎]	2. 頁	禾	頁	頁	禾	禾	頁	2
08	荆	2. 刀	艸	刀	丿	艸	∅	丿	2
09	矚	2. 又	目	目	又	目	目	目	2
10	蠲	3. 皿	虫	皿	皿	虫	∅	皿	2
11	𪔐	3. 田	女	女	女	女	女	女	2(1)
12	釐	3. 支	里	里	里	里	里	里	2(1)
13	羸	3. 月	貝	月	月	貝	貝	亠	3
14	𪔐	4. 一	[𪔐-簡]	厶	乚	∅	∅	厶	3(2)
15	[𪔐]	3. 雨	雨	雨	[𪔐-繁]	雨	雨	雨	1
16	暢	4. 丨	[暢-簡]	田	丨	∅	∅	田	2
17	[暢]	3. 日	日	日	日	日	日	日	1
18	粵	4. 丿	米	米	米	米	米	米	2(1)
19	彳	4. 一	彡	戈	口	彡	∅	戈	4(3)
20	果	4. 丨	木	木	木	木	木	木	2(1)
21	我	4. 丿	戈	戈	丿	戈	戈	戈	2
22	良	4. 丶	艮	艮	艮	艮	∅	艮	2(1)
23	承	4. ㇏	手	乙	乙	手	手	乙	2

〈표 5〉에서 한국의 『漢韓大辭典』(C)과 『高麗大藏經異體字字典』(D)은 각 사전의 일러두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康熙字典』의 부수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서 『歸部規範』(2009)의 부수와 다르다.²⁷⁾ 『中華字海』(1994)와 『漢字海』(2018)는 『歸部規範』(2009)의 부수와 일치하는 것이 많은 편인데, 두 사전은 앞에

27) 『漢韓大辭典』 일러두기, II-1. 글자의 배열: “(2) 자전에 따라 부수를 달리한 경우에는 『康熙字典』의 부수에 따랐다.”; 『高麗大藏經異體字字典』 일러두기, ㉓ 글자의 배열: “(2) 전체적인 글자 배열 순서는 정자를 기준으로 부수자와 필획수를 참조하여 『康熙字典』의 글자 수록 순서와 동일하게 하였다.”

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범례에서 부수 배속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특히 먼저 출판된 『中華字海』(1994)의 원칙은 『歸部規範』(2009)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歸部規範』(2009)의 제4항에서 제시된 ‘앞의 몇 가지 원칙에 따라 부수를 선정할 수 없는 글자는 제1획을 단필부수(單筆部首)로 취한다’는 원칙은 『中華字海』(B)와 『漢字海』(E)에서 모두 마지막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는데,²⁸⁾ ‘21. 我’, ‘22. 良’, ‘23. 承’과 같이 구성요소 간의 분리 경계가 없는 단일자(獨體字)가 자체 부수가 아닌 경우에는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다.

‘13. 羸’과 ‘19. 𧈧’은 사전마다 다르게 선택한 부수의 가짓수가 가장 많은 글자이다.

羸은 『說文解字』에 의하면 그 뜻은 ‘이익이 남다(賈有餘利也)’이고 의부 貝와 성부 羸으로 구성된 형성자이며, 『康熙字典』에서는 의부인 貝를 이 글자의 부수로 삼았다. 『漢語大字典』(A)과 『中華字海』(B)에서는 『歸部規範』(2009)의 “左와 右, 上과 下가 모두 부수가 아니라면, 각 편방에서 左→右, 上→下의 순으로 부수에 해당하는 것”을 취하는 제3항에 따라 羸을 ‘月’부에 배속하였고,²⁹⁾ 『漢字海』(E)에서는 亡이 亠부의 부형부수(附形部首)이므로 上에 있는 亠(亡)부에 배속하였다.

𧈧의 본뜻은 ‘문채(文彩)’이고 의부 彡과 성부 或이 구성된 형성자이며, 『康熙字典』은 의부인 彡을 부수로 삼았다. 『歸部規範』(2009)에서는 제4항의 원칙에 따라 제1획의 단필부수(單筆部首)인 一을 부수로 삼았지만, 다른 사전에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漢語大字典』(A)과 『漢字海』(E)의 부수가 戈인 것은 𧈧을 ‘내외 결합구조(ㇿ)’로 보고, 外에 있는 𠂇에 “(6) 획수의 다소에 차이가 있는 몇 가지 부수가 서로 겹쳐있다면 획수가 많은 부수”를 취하는 원칙을 적용하여 戈과 彡 중에 戈를 부수로 취한 것이다. 그리고 『中華字海』(B)에서는 “(6) 분리성 결합구조의 부수와 연결성 결합구조의 부수가 병존할 때, 분리성 결합구조의 부수”를 취하는 원칙을 적용하여, 𧈧의 편방을 𠂇, 口, 一로 분해했을 때, 분리성 결합구조인 口와 一 중에 그 위치가上和, 글자 내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口를 부수로 취한 것이다.³⁰⁾

『中華字海』(1994)의 이 원칙은 앞에서 강조한 글자 내부의 시각적인 분리 경계선이 부수 판단의 기준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과 맞닿아 있다. 『歸部規範』(2009)과 『中華字海』(1994), 『漢字海』(2018)의 부수 판단의 원칙을 종합하면 다음의 몇 가지 기본원칙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글자 내부에서 길이가 긴 분리 경계선을 기준으로 左와 右, 上과 下, 內와 外의 결합구조로 구분하는 것을 전제하며, 분리성 편방을 부수로 취한다.

둘째, 결합구조 내의 위치에 따라 左, 上, 外의 편방을 먼저 부수로 취한다.

셋째, 左, 上, 外의 편방이 부수가 아니라면, 右, 下, 內의 것을 취한다.

넷째, 上→下, 左→右의 쓰기 순서에 따라 부수에 해당하는 것을 취하고, “부수가 사각의 위치에 있다면

28) 『中華字海』(1994) 凡例, 編排, ‘25. 查字方法’: “(7) 無從取部的字, 按起筆查單筆部首. 奉(一) 凸(丨) 年(ノ) 之(丿) 巴(乙); 『漢字海』(2018) 凡例, 部首檢字法, ‘部首查字方法說明’: “四、部首無法找到的難檢字, 以起筆筆形做部首. 例如: 凸(丨) 也(乙) 虧(一) 九(ノ)”

29) 『歸部規範』(2009)의 제3항에서 羸의 부수를 月로 취한 것은 상하 결합구조(ㇿ)로 분해한 ‘𠂇’과 ‘月貝凡’가 개별 부수가 아니므로, ‘𠂇’, ‘月’, ‘貝’, ‘凡’의 4개의 편방에서 上→下의 순서대로 부수에 해당하는 ‘月’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30) 『中華字海』(1994) 凡例, 編排, ‘25. 查字方法’: “(6) 分離形結構的部首和連接性結構的部首並存時, 取前者爲部首而不取後者.”

左上→左下→右上→右下의 순서로 부수를 취한다(『中華字海』凡例, 25. 查字方法, 3)."

위의 기본원칙을 적용하면, '13. 羸'의 부수는 口이고, '14. 礮'의 부수는 礻이고, '19. 噉'의 부수는 口이다.

(2) 색인 구성의 효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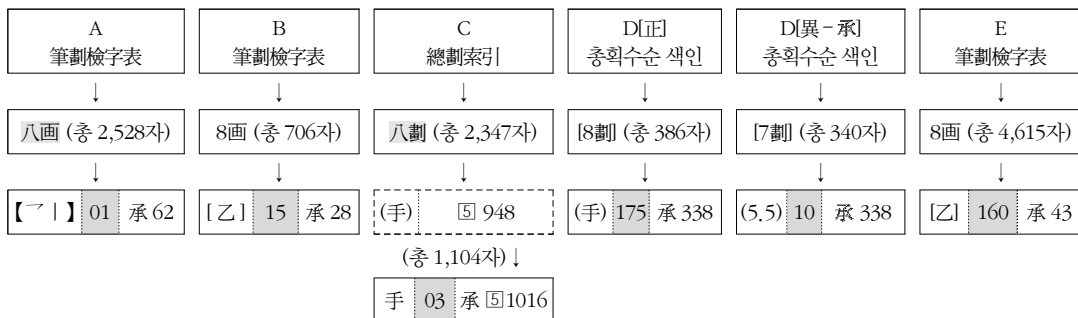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한자의 결합구조에서 시각적으로 분리되어 직관적으로 변별해낼 수 있는 편방과 그 위치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부수를 판단하는 방법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한자에서 형성자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형성자의 결합구조를 보면 의부가 왼쪽에 있는 '左形右聲'의 구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좌우 결합구조(口口)에서 왼쪽의 편방을 부수로 취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둔 것은 매우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이 부수색인은 한자의 배열과 검색에서 유용하지만, <표 5>와 같이 사전마다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 일부 한자들의 부수로 볼 때 일반 사용자가 모든 한자에 부수검색을 적용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한자 사전에서 색인은 2만 자가 넘는 표제자 중에 찾고자 하는 한 글자를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정보 판단의 측면에서 보면, 부수보다 획수가 상대적으로 더 명확성을 갖는다. 부수는 낱글자 내부에 구성된 필획, 부진, 편방의 세 가지 구성단위 중에서 부수를 판단해야 하지만 글자의 총획은 1~2획 정도의 오차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획수를 판단해낼 수 있다.

한자의 자음과 부수 정보를 모르는 경우 총획색인을 선택할 수 있으며, 5종 한자 대사전의 총획색인에서는 대체로 [획수]→[필순-필행]의 계층 구조를 따르고 있다. <표 5>에서 상용한자이지만 부수를 판단하기 어려운 '23. 承'을 예로 들어 5종 한자 대사전의 '총획색인'을 적용해보았다. 다음의 <표 6>은 총획색인에서 '承'을 검색한 과정을 나타낸다.

<표 6> 5종 한자 대사전의 '承'자 총획색인 적용도



<표 6>의 검색 과정에서 사전별 총획검색의 마지막 단계에서 회색으로 표시한 가운데 숫자는 검색 2단계에서 承이 배열된 순서이다. 사전별로 총획색인에서 검색된 承의 배열순서의 차이는 수록자의 수량 범위뿐만 아니라, '2단계의 검색요소'에 따라 다르다. 여기에서 8회에 수록된 글자 수량이 비슷한 사전을 대조해보면,

[획수]→[부수]의 구조보다 [획수]→[필순-필형]이 글자 검색에서 더 효율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漢語大字典』(A)의 총획색인은 [획수]→[필순-필형] 계층 구조이며, 2단계의 [필순-필형]은 [제1, 2획 필형]을 적용하였다. 承의 총획은 8획이고, 총 2,528자가 수록된 8획에서 承의 [제1, 2획 필형인 ㄣ |]의 글자목록에서 承은 1번째에서 찾을 수 있다.

반면에, [획수]→[부수]의 단계로 검색해야 하는 『漢韓大辭典』(C)의 총획색인의 2단계에서는 각 글자의 부수를 알고 있더라도 총획색인에서 해당 부수의 위치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부수색인’에서 부수의 권호와 쪽 번호를 검색한 후에야 글자를 좀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표 6>과 같이 『漢韓大辭典』(C)의 총획색인에서 承의 검색결과는 [8획]→[手部 3번째]로 간단해 보이지만, 承의 부수를 알고 있더라도 부수 배열순서를 모른다면, 총 2,347자가 수록된 8획의 한자목록에서 부수 총획이 4획인 手가 나올 때까지 훑어보다가 1,105번째에서 承을 발견해야 한다. 이러한 어려움은 [획수]→[부수]의 색인 구조를 적용한 『高麗大藏經異體字字典』(D)의 정자 총획색인에서도 나타난다.

한자 대사전의 경우 [획수]→[필순-필형]의 색인 구조에서 2단계인 [필순-필형]에 [제1, 2획 필형]을 적용하는 것이 검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高麗大藏經異體字字典』(D)의 이체자 총획색인에서 承의 이체자인 承은 [제1, 2획 필형인 (5.5)의 글자목록에서 10번째에서 찾을 수 있다.³¹⁾ 그러나 2단계 검색요소에 [제1획 필형]만 명시한 『中華字海』(B)와 『漢字海』(E)의 총획색인에서는 承의 배열순서가 상대적으로 뒤에 있으며, 8획에 총 4,615자를 수록한 『漢字海』(E)에서는 제1 필형인 乙의 글자목록에서 承은 160번째에 배열되어 있다. 이것은 수량 면에서 글자의 밀도가 높을수록 2단계 검색요소에 [제1, 2획 필형]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말해준다.

이같이 위의 5종 한자 대사전의 색인을 사용자 지향성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한자 대사전의 효율적인 색인 구성에 대해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해볼 수 있다.

첫째, 검색의 편의를 위해 반드시 사전별로 반드시 수록되어야 할 것은 ‘색인의 찾아보기’이다. 색인별로 계층 구조에서 명시된 각 검색요소의 위치를 ‘색인 내에서의 쪽 번호’로 제시해야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다. 그러나 분석 대상의 5종 한자 사전은 모두 ‘색인별 찾아보기’를 별도로 수록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표제자 총 102,434자를 수록하고 있는 『漢字海』(E)의 ‘筆劃檢字表’에는 1획부터 64획까지 총 획별로 배열된 표제자 목록이 총 207쪽이고, ‘部首檢字表’에는 1획부터 17획까지의 부수별로 배열된 표제자 목록이 총 228쪽이다. 承을 총획색인으로 검색할 때, 먼저 총획색인의 찾아보기에서 [8획]-[乙] 25쪽과 같은 정보를 얻는다면 좀 더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을 것이다.

색인별 찾아보기에서 검색요소인 [획수], [부수], [필순-필형]별 색인 내에서의 쪽 번호를 어느 단계까지 노출할지는 글자목록의 수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31) 일반적인 ‘필순-필형’ 원칙에 의하면 承의 [제1, 2획 필형]이 ㄣ | 이므로, 『高麗大藏經異體字字典』의 오편형의 대체번호로 표기하면 (5.2)이다. 본문의 3.1.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字序規範』(1999)을 비롯하여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丿(豎鉤)을 주필형인 丨(豎)의 부필형으로 간주하지만, 『中華字海』와 『高麗大藏經異體字字典』에서는 乙(ㄣ, 折) 필형의 부필형으로 간주한다.

둘째, 색인의 검색요소는 정보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명시적 형식의 계층 구조’이어야 한다. 일반적인 한자 색인에서 검색요소는 2단계까지 명시되어 있다. 2단계에서 분류된 글자목록에 수량이 많다면 검색의 범위를 좁히기 위해 3단계의 계층 구조를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표 4〉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5종 한자 대사전의 색인에서 『漢韓大辭典』(C)를 제외하고 공통으로 적용한 검색요소의 2단계 구조는 [획수]→[필형-필순]이다. 이러한 구조의 유용성은 〈표 6〉의 사전별 총획색인 적용에서 검증되었으며, 2단계의 [필순-필형]은 [제1, 2획 필형]이 적용된 것이 글자 검색에서 더 효율적임을 확인하였다. 수량 면에서 글자의 밀도가 높은 [획수]에서는 2단계에서 [제1, 2, 3획 필형]의 필형 조합별로 표제자를 배열한다면 검색범위를 더 좁힐 수 있을 것이다.

색인의 구성은 검색요소와 표제자, 표제자의 위치(쪽 번호) 등의 검색 정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활자를 사용한 시각적인 구조이어야 한다. 검색요소는 약어나 대체 기호 대신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형식을 선택해야 검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³²⁾ 따라서 [필형-필순]의 표기 형식은 【ㄱ | 1】와 같이 필획 형태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표기가 합리적이다.

셋째, 색인 내부에서 계층 구조로 적용한 [부수], [획수], [필순-필형] 등의 검색요소가 상부 표제어(guide words)로 명시되어야 한다. 상부 표제어는 색인 사용자가 검색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안내하는 표지이다.³³⁾ 〈표 7〉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5종 한자 대사전에서는 일반적으로 쪽 번호 옆에 색인명칭이 명시되어 있으나, 상부 표제어로 검색요소가 모두 명시된 것은 아니다. 아래 표에서 각 사전에서 색인별로 명시된 상부 표제어의 위치(上/下)와 색인명칭, 그리고 상부 표제어에 노출된 2단계 검색요소를 [] 안에 표시하였다.

〈표 7〉 5종 한자 대사전의 색인별 상부 표제어

구분	부수색인	총획색인	자음색인
A	—	下：筆畫檢字表 [총획]	下：音序檢字表 [한어병음 음절]
B	—	上：筆畫檢字表 [총획]	上：音序檢字表 [∅]
C	上：部首檢字 [부수]	上：總畫索引 [총획]	上：字音索引 [한글 음절]
D	下：[正] 部首順 索引 [∅]	下：[異] 總劃數順 索引 [∅]	下：[異] 字音順 索引 [∅]
		下：[正] 總劃數順 索引 [∅]	
E	上：部首檢字表 [부수]	上：筆畫檢字表 [총획]	—

32) 사전의 구성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요소를 ‘사전적 매개변수’라고 하며, 그중 사용자 지향성을 고려한 형식적인 매개변수에는 “정보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분명한 활자와 함께 사전항목을 밝히고, 쉽게 훑어볼 수 있는 시각적인 구성”과 “주어진 정보를 최대한 이해할 수 있고 더 찾아보아야 해결할 수 있는 약어나 기호들을 피함으로써 직접 해석할 가능성을 포함하는 것”이다(조남신 『사전학』, 서울: 한국문화사, 2015, 22쪽).

33) 상부 표제어는 난의 표제어라고도 한다. 난의 표제어는 외적 접근구조에 해당한다. 접근구조는 사전에서 사용자가 찾고 있는 정보에 사전 사용자를 다른 접근 경로를 따라서 안내하는 지시구조로, 외적 접근구조와 내적 접근구조로 나뉜다. 미시구조에 대한 접근구조를 내적 접근구조라고 하고, 중심어휘목록에 대한 접근구조를 외적 접근구조라고 한다. 외적 접근구조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의 하나는 상부 표제어(running head)이며, 왼쪽 페이지의 왼쪽 꼭대기, 오른쪽 페이지의 오른쪽 꼭대기에 배치되어 있다(조남신, 앞의 책, 25~26쪽).

색인 구성에서 검색요소의 명시성을 비교해 보면, 『漢韓大辭典』(C)의 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부수] → [획수]의 색인 구조인 부수색인에서는 각 면에 분류된 入部, 八部 등의 ‘부수 명칭’과 2단계 검색요소인 ‘획수’가 숫자로 명시되었고, [획수] → [부수의 구조인 총획색인]에서는 각 면에 분류된 ‘획수’만 명시되어 있다.

Figure 3 shows a page from the '漢韓大辭典' titled '部首檢字 (形聲~音部)'. It displays a grid of characters organized by radical and stroke count. The page number 235 is visible at the top right. Several entries are circled in red, highlighting specific characters and their corresponding radical and stroke information.

〈그림 3〉『漢韓大辭典』部首檢字의 좌표 형식:
부수별 [부수 외 획수] 표기

Figure 4 shows a page from the '漢韓大辭典' titled '總畫索引 (3~4획)'. It displays a grid of characters organized by total stroke count. The page number 254 is visible at the top left. Several entries are circled in red, highlighting specific characters and their corresponding total stroke count.

〈그림 4〉『漢韓大辭典』總畫索引의 좌표 형식:
총획별 [부수] 표기

넷째, 색인에서 검색요소의 계층 구조는 종적 형식과 좌표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용자 지향성을 고려할 때 색인의 형식과 구성은 시각적 접근성과 명확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색인에서 검색요소의 배치 형식은 색인별로 한 면에 배열되는 글자목록의 행과 열의 수량에 따라 종적 형식과 좌표 형식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자 대사전에서는 단계별 검색요소가 표제자 배열 형식과 마찬가지로 종적으로 배치되어 있지만(그림 1, 2), 『漢韓大辭典』에서는 좌표 형식을 취하고 있다(그림 3, 4).

史有爲(1993: 72)는 계층 구조로 글자목록을 분류한 색인에서 좌표 형식을 제안한 바 있다. 색인의 좌표 형식은 2가지 이상의 검색 조건이 드러나도록 좌표 형식으로 색인을 구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획수] → [부수] 구조의 총획색인에서 획수별로 2단계 검색 조건인 부수를 그 부수에 속하는 글자이면서 획수가 가장 적은 글자의 왼쪽에 세로로 배열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은 『漢語大詞典』의 권별 ‘部首檢字表’에서도 살펴볼 수 있으며, 『漢韓大辭典』의 部首檢字와 總劃索引 또한 이러한 좌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3, 4). 『漢韓大辭典』의 색인에서는 2단계의 검색요소인 [획수(部首檢字)]와 [부수(總劃索引)]를 글자목록에서 각 획수와 부수에 속하는 ‘첫 번째 글자의 왼쪽에 첨자로 표기하는 좌표 형식’을 채택하여 검색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좌표 형식은 한자 검색에 사용하고 있는 색인의 종류와 검색요소의 층위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한 면에 배열되는 글자목록의 행과 열이 적은 구성에 적합하며, 2단계의 검색요소가 [필순-필형]인 경우에는 시각적 명확성,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좌표 형식보다는 종적 배치가 적합하다.

이밖에도 한자 사전의 범례(일러두기)에서 각 사전에서 색인별로 적용한 원칙과 특이점을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부수] 검색에서는 부수 변이형(變形部首)을 어떤 부수에 귀속시켰는지 보여주는 ‘부수와 부수 변이형(變形部首) 대응표’를 제시해야 한다. 더불어 [필수-필형] 검색과 관련하여 丨(豎鉤)과 같은 필형을 어떤 주필형에 귀속시켰는지 보여주는 ‘주필형과 부필형 대응표’를 제시해야 한다.

IV. 결 론

본 논문은 중국과 한국의 5종 한자 대사전을 대상으로 표제자 배열 원칙과 색인에 관해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사용자 지향성의 관점에서 한자 검색에 효율적인 색인의 구성 체계를 모색하였다. 본문의 분석 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표제자 배열’은 5종 한자 대사전에서 모두 부수를 글자배열의 거시적인 틀로 적용하고 획수에 따라 배열하는 ‘부수-획수 체계’를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그다음 기준으로 ‘필순-필형’ 원칙을 적용하였다. 분석 대상 중 한국 한자 대사전의 부수는 『康熙字典』의 214부를 그대로 따르고 있고, 중국 한자 대사전은 수록자의 내용과 수량 범위에 따라 『康熙字典』의 214부를 기초로 가감되어 조정되었다. 이같이 『康熙字典』의 214부가 현재까지 여러 한자 사전의 부수 체계의 근간이 되는 이유는 그 권위성, 역사성, 관용성에 있다. 『康熙字典』은 전통 한자 사전의 편찬 체계를 집대성한 한자 사전이며, 부수 선정에서 形-義 연관성을 지닌 여러 글자가 공유하는 의부를 부수로 선정하여 전통 한자 사전을 통해 오랫동안 널리 사용된 관용적 부수를 기본적으로 채택하였고,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태의 일치성만 고려하여 여러 글자가 공유하는 편방을 부수로 선정하여 ‘부수 체계’의 비교적 완성된 모델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둘째, ‘색인 구성’은 5종 한자 대사전이 ‘다중 색인’과 ‘계층 구조’라는 공통된 특징을 지닌다. 분석 대상의 5종 한자 대사전에 적용된 색인의 종류는 부수색인, 총획색인, 자음색인의 세 가지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총획색인’과 ‘자음색인’을 채택하고 있다. 사전이용자의 한자 정보에 대한 이해도와 검색 목적을 고려할 때 여러 한자 대사전에서 보여준 ‘다중 색인’의 구성은 검색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색인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2단계의 계층 구조이며, 총획색인은 [회수]→[필순-필형]의 색인 구조를 적용하고 있다. <표 6>과 같이 부수 식별이 어려운 한자의 경우 [필순-필형]이 2단계 검색요소로 적용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필순-필형]의 형식은 글자의 수량에 따라 결정되며, [필순-필형]에 따라 글자목록이 많은 경우에는 【—】와 같이 [제1, 2회 필형] 형식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 한자체계에서 형성자의 수량과 그 좌우 결합구조(㉑)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부수검색법의 유용성은 한자 사전의 색인에서 여전히 작동한다. 그러나 ‘부수 배속의 모호성’으로 인해 ‘모든 한자 낱글자’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적 검색법이 될 수는 없다. ‘부수 배속의 모호성’은 『歸部規範』(2009)의 원칙에서 나타

나는 ‘단일자(獨體字)의 부수와 관용적 부수에 관한 처리’, ‘한자 결합구조에 대한 인식과 판단’의 두 가지 문제점을 통해 관찰되었다. 분석 대상의 중국 한자 대사전의 색인에서 [부수]가 검색요소로 적용되지 않은 것은 일반 사전이용자가 겪게 될 일부 한자들에 대한 부수 식별의 난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사전의 색인은 사전편찬자가 제공하는 정보 검색의 경로이므로, 효율적인 검색을 위해 색인에서 ‘색인별 찾아보기’를 구성하고, ‘검색요소가 명시적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몇만 자 이상의 방대한 수량의 한자를 수록한 대사전의 색인에 수록된 글자목록을 고려할 때, 색인 내부에서 계층 구조로 명시된 [부수], [획수], [필순-필형] 등의 검색요소가 상부 표제어(guide words)로서 명시되어야 한다. 5종 한자 대사전에서는 대부분 총획색인에서 색인명칭과 함께 해당 색인 페이지에 수록된 [획수]가 상부 표제어로 명시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상부 표제어에 2단계 검색요소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2단계 검색요소별로 수록된 글자목록이 많은 경우에는 그 페이지에 수록된 2단계 검색요소가 상부 표제어로 함께 제시되어야 검색 경로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자 대사전의 색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적용한 색인 구성안은 다음 <표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8> 한자 사전의 색인 구성안

색인별 찾아보기	[1, 2단계 검색요소]	색인 내 검색요소별 쪽 번호
	↓	
부수색인	[부수]	→ [획수] (→ [필순-필형])
총획색인	[획수]	→ [필순-필형: 제1, 2획 필형]
자음색인	[한어병음자모]/[한국한자음]	→ [획수] (→ [필순-필형])

〈참고문헌〉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편, 『漢韓大辭典』, 단국대출판부, 1999~2008.

森賀一惠, 「漢字檢索法」, 『圖書館文化』 36: 4, 1995.

이규갑 편, 『高麗大藏經異體字字典』, 고려대장경연구소, 2000.

조남신, 『사전학』, 한국문화사, 2015.

藍德康·松岡榮志 編, 『漢字海』, 北京: 華語教學出版社, 2022.

冷玉龍·韋一心 主編, 『中華字海』, 北京: 中華書局·中國友誼出版公司, 1994.

蘇培成, 『現代漢字學綱要』,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1.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國家語言文字工作委員會, 『語言文字規範(GF 0011-2009): 漢字部首表』, 2009.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國家語言文字工作委員會, 『語言文字規範(GF 0012-2009): GB13000.1字符集漢字部首歸部規範』, 2009.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國家語言文字工作委員會, 『語言文字規範(GF 3003-1999): GB13000.1字符集漢字字序(筆畫序)規範』, 上海教育出版社, 1999.

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漢語大詞典編纂處 編, 『漢語大詞典』,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1986~1993.

漢語大字典編輯委員會 編纂, 『漢語大字典』(第2版), 武漢: 湖北長江出版集團·崇文書局·四川出版集團·四川辭書出版社, 2010.

史有爲, 「漢字檢索的重新審視——三級(柔性)檢字法試儀」, 『語言文字應用』 2, 1993.

袁世旭, 「我國漢語辭書排檢體例演變的研究綜述」, 『漢字文化』 3, 2011.

陳春風, 「《漢語大字典》、《漢語大詞典》部首檢字中的若幹問題」, 『求索』 5, 2007.

* 이 논문은 2023년 2월 28일에 투고되어,
2023년 3월 22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3년 4월 5일까지 심사하고,
2023년 4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 Abstract ■

A Study on the Principles of Title-Character Arrangement and Indices in Chinese Character Dictionaries

Kim, Eunhee*

This study performs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principles applied to the arrangement for title characters and indices in five Chinese character dictionaries published in China and Korea. Based on the analysis, the study explores a constructional system to enhance efficiency from the user-oriented perspective in searching for Chinese character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in the arrangement of title characters, the five Chinese dictionaries have adopted the radical-stroke system as the basic principle applied in most cases, followed by the stroke order-stroke feature principles. Secondly, the five Chinese dictionaries share two common features in their index construction: multiple indices and hierarchical construction. In general, an index is constructed with a two-tier system, and the index for total strokes applies '[the number of strokes] → [stroke order-stroke feature]' construction. Thirdly, the indices of these five dictionaries exclude 'the number of radicals' from the scope of elements for searches, supposedly in consideration of the difficulty of identifying indexing components on the part of general dictionary users. Fourthly, the indices of dictionaries serve as the paths for information searches offered by the dictionary editors. For more efficient searches, it is suggested that Search by Index be constructed in indices and that explicitness of the elements for a search be emphasized. In particular, the elements in a search must be explicitly specified for guide words. In the case where the list of characters complied by the elements from the two-tiered search is too long, it is necessary that the two-tiered search elements be presented for guide words as well.

[Keywords] Chinese character dictionary, arrangement of title characters, index, number of radicals, number of strokes, radical-stroke system, stroke order-stroke feature principle

* Associate Professor, Sungshin Women's University